교육대학 교수의 삶과 일상성

이 정 선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오늘날 학교에 대한 이해의 한 방편으로 학교문화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학교 현장에 터하여 학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흔히 개인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인격이라면 한 사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말, 몸짓, 행동, 옷 입는 것, 심지어는 걸음걸이를 통해서이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사회의 문화도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들이 있다. 그것은 집단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이다.

물론 집단 구성원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인 Blumer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화 내의 어떤 상징이 주는 의미에 입각하여 행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기존의 문화 양식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의 문화를 내면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현상일지라도 부여되는 의미는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고유한 의미체계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행동이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즉, 의미는 문화맥락적이고 기대역할은 의미에 입각하여 형성된다는 이야기다.

대학문화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과 일상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즉,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느끼고 소유하고 있는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학교경험이 학교문화를 구성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학교 사회의 성원들이 학교의 물리적, 생태적 현상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개념화하며, 학교에서의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또한 여러 가지 사물에 어떤 가치의 위계를 매겨서 판단하고, 그리고 학교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행동의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가 등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직하는 일련의 표준이 학교문화이다. 따라서 교육대학 교수들의 삶과 일상성은 결국 그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교 내의 인적·물리적 조건들과 상호 작용해가는 과정에서 축적한 일련의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된 이 글에서는 교육대학 교수들이 느끼고 소유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그릴 수는 없다.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자세한 문화기술은 차치하고 일반 종합대학 교수들의 일상성과 구별되리라고 생각되는 특징적인 점들만을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

다. 물론 내가 만진 코끼리의 실체가 교육대학 교수들의 보편적인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교육대학 교수들의 일상성을 형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보다도 학생들과의 우호적인 만남이다. 시카고 대학의 Jackson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 사회는 구성원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의하여 규율된다. 교수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 그리고 교수와 교수간의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형식적 학교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형성한다. 특히 교수와 학생간의 비형식적 인간관계는 각자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리고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그것이 형식적이 되었건 진심에서 우러나왔건 간에-을 캠퍼스 도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교수에 대한 인사이다.

필자가 교육대학 교수가 되어서 가장 놀란 일 중의 하나는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수없이 받게 되었던 학생들의 인사였다. 처음의 쑥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기억은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같은 학교 구성원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가 되었다. 공간이 인간사회의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대학의 캠퍼스 규모와 구성원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교육사회학자인 Waller교수가 〈교수의 사학〉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학교 내의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문화를 설명하면서 교사의 평가권이 결국은 학생들을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메카니즘(교육대학 내에서의 평가결과가 임용과 연관된다)을 감안하더라도, 교육대학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깍듯한 태도는 일반대학의 학생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세계의 문화와 조직"이라는 책을 쓴 Hofstede가 이야기하는 '권력거리'를 통해서 볼 때도, 교육대학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는 교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학생에게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여전히 교수와 학생간 권력의 거리가 상당할 정도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이는 현재의 교육자와 미래의 교육자와의 만남에 양 당사자들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상호간의 기대 역할이 각자의 행동을 구속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흔히 대학의 사명을 교수,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로 이야기한다. 교육대학 교수들은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수행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르치는 일에도 전문가가 될 것을 기대한다.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말이다. 유명한 교수들은(연구와 학문적 업적을 많이 쌓은 교수)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들 한다. 그러나 교육대학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것은 이해되기 곤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대학 교수들은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업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중의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의 특성상, 초등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 높이 수준에서 가장 정확히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요구하듯이, 교육대학 교수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수업같이 학습자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 가르치는 방법까지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대학 교수들의 성장, 발달과정도 일반 대학교수들의 그것과 구별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Navitt Sanford 교수는 교수의 성장과 발전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자기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학술연구 논문을 많이 내고, 논문의 수준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 첫 단계이다. 학문적인 자기성취를 이룩해서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과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학회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다양한 잠재성을 개발하기에 힘쓰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나서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봉사 정신이 움트고 타인의 발견에 관심이 갈 때, 학생들과의 순수성이 깃든 관계를 가지며 사제의 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교육대학 교수들은 연구보다는 교수를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 체제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학회활동과 연구활동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교육대학 내의 모든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강의실이 되었건, 실험실이 되었건 아니면 교육매체나 실험기자재가 되었건 심지어는 교수들까지도 120%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부 수업은 말할것도 없고 연수, 대학원, 계절제,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전담교사 및 중등교사의 보수교육까지 점철되어 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모든 물리적 자원의 마모가 빠를 뿐만 아니라 자원의 교체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교수 역시 활용도가 일반 대학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학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더 나아가 초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수가 주가 되고 연구가 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셋째, 위와 관련하여 교육대학 교수들은 연구나 학회활동에 있어서도 이론 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천 지향적인 두 마리 토끼를 좇아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를 통한 이론의 정립에 그치지 않고 연구한 결과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론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생산된 이론의 적용 여부도 밝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더불어서 초등교사의 양성은 교수들로 하여금 관련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풍부한 교양과 삶에 대한 예지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교육대학 교육의 교육내용, 방법 등이 초등 아동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관계로 모든 인간 행위를 아동교육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론화하려는 경향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들이 결국 교육대학 교수들의 삶을 구속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대학 교수만의 맛과 냄새를 만들어가는 듯하다.

끝으로,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교육대학 교수들은 대체로 초등학교의 현장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수업참관, 수업지도, 수업협의회, 장학지도, 그리고 현장관련 학회 및 연수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대학 교수들은 현직 교사들의 연구를 장양하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회봉사 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는 나이든 원로교수나 젊은 교수나 가릴 것이 없다.

물론 초등교사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학교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업과 학생통제에 관한 것이지만 때로는 밤을 새우며 초등교사들의 사는 이야기와 애환을 들

어가며 인생의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도서벽지의 외로운 교사의 벗이 되어주기도 해야 한다. 때로는 일부 소외된 도시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결국 교육대학 교수들을 현장과 가깝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대학 교수들은 자질구레한 할 일이 참 많다. 이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오는 업무상의 것일 수도 있고 교육대학만의 특수성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교수와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 및 학생들과의 인간관계와 현장교사들과의 관계가 결국 교육대학 교수들의 삶과 일상성을 구속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물론 교수의 능력급제가 발표되고 대학간의 경쟁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하면서부터 '박사고시'를 할 때처럼 다시 '교수고시'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최근에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요인들, 가령 교원 정년 단축과 이로 인한 교사 수급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가 교육대학을 찌들게 하고 그 속에서 사는 교육대학 교수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 대학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대학 교수들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구와 교수를 병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이정선

한양대 사범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럭거스 뉴저지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및 초등교육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다. 한국교육인류학회 부회장, 아시아 비교교육학회 이사 및 열린교육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왜 열린교육이어야 하는가? : 열린학교 현장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과 같은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저서가 있으며, 논문 『학업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등 다수를 발표하였다.